

오늘부터 ‘노란봉투법’ 시행

“원·하청 대화 제도화… ‘지속가능한 진짜 성장’ 기대”

고용노동부, 개정 노조법 시행
원청의 사용자 범위 확대 등 ‘핵심’
시행 초기 현장 혼선 최소화 지원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 운영
이달 설명회 열어 실무 방향 안내



ChatGPT에 의해 생성된 하청노조 교섭권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한 법 시행의 의미를 담은 이미지.

오늘부터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가 시행되면서 원청의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고 노동쟁의 대상도 넓어진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현장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0일부터 개정 노조법이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해당 법은 지난해 9월 공포된 뒤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원청의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노조와의 교섭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한 것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 사용자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하청노조는 자신들의 근로조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과의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보다 분명해졌다.

노동쟁의 대상도 확대된다. 앞으로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도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조합 설립 요건도 일부 완화된다.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이 삭

제되면서 비근로자가 일부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반려할 수 없도록 했다.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제도도 달라진다.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경우 노동조합 내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정도, 손해 발생 관여 정도 등을 고려해 책임 비율을 정하도록 했다. 노조와 근로자는 법원에 배상액 감면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정부는 법 시행 초기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우선 법률·노사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운영해 원·하청 관계에서의 사용자성 판단 등 주요 쟁점에 대한 기준과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자문 사례를 축적해 공개함으로써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3월 중 개정 노조법 설명회를 열고

상반기 동안 정기 세미나를 운영해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교섭 절차 운영 등 실무 적용 방향을 안내한다.

아울러 지방 노동관서를 중심으로 전담반을 구성해 원·하청 교섭 절차를 안내하고, 교섭단위 분리나 창구 단일화 등 법적 절차를 지원하는 등 현장 밀착 지도도 병행할 예정이다. 노사 간 공감대가 형성된 경우에는 전문가 상생교섭 컨설팅을 통해 교섭을 지원하고 모범적인 상생교섭 모델도 마련해 지속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정법으로 갈등의 악순환이 끊어지고, 원·하청 노사간 대화의 제도화로 신뢰가 회복된다면 ‘지속가능한 진짜 성장’이 가능하다”며 “정부가 일관된 원칙과 지원으로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면서, 노사관계에서의 신뢰자산이 형성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삼성전자, 2nm 수율개선 속도… “HBM 매출 3배 확대 목표”

올해 말 첫 웨이퍼 테이프인 진행
첨단 패키징 공정으로 단계적 전환
차세대 반도체 경쟁력 확보도 나서
메모리·파운더 동시운영으로 차별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건설 중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전경.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2nm(나노미터·10억분의 1m) 공정 수율을 예상보다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운드리 사업 반등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반도체 핵심인 고대역폭메모리(HBM) 매출을 3배로 확대하는 전략까지 맞물리면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 경쟁 구도에도 변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열린 JP모건 코리아콘퍼런스에서 2nm 공정 수율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다고 밝혀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고대역폭 메모리(HBM) 매출을 약 3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제시하며 향후 매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에서 장비 설치를 진행 중이며 첫 웨이퍼 테이프인은 올해 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사업의

손익분기점 달성을 위해 수율 개선과 규모의 경제 확보, 가동률 제고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가동률이 낮은 기존 라인인 첨단 패키징 공정으로 단계적 전환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전략이 삼성전자의 첨단 파운드리 공정과 인공지능(AI) 메

모리를 결합한 차세대 반도체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2nm 이하 초미세 공정 시장은 대만 TSMC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삼성이 수율 안정화 시점을 앞당긴다면 애플·엔비디아 등 대형 팹리스 고객사 유치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최첨단 공정인 게이트올 어라운드(GAA) 노후로 수율을 끌어올리며 기술적 신뢰 회복에도 나서고 있다. 2나노 공정이 케도에 오르면서 과거 삼성의 핵심 고객사였던 퀄컴의 수주 가능성도 커졌으며 공급망 다변화를 노리는 AMD 역시 삼성 파운드리 고객사로 합류할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HBM4에 들어가는 10나노급 6세대 D램 수율 안정화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HBM4의 두뇌를 담당하는 로직 다이 양산

수율을 현재 80%를 상회한 것으로 파악된다. HBM4 로직 다이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의 4nm 공정을 활용해 생산된다.

더욱이 삼성전자는 로직다이 통합 기술 확보를 위해 메모리부터 패키징까지 일괄 제공하는 ‘턴키’ 솔루션을 강화하고 주요 파운드리 업체들과의 협력도 확대하는 모습을 띠고 있다. 삼성이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동시에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종합 반도체 기업이라는 점에서 경쟁사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따른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동시에 운영하는 종합 반도체 기업이라는 강점을 갖고 있다”며 “첨단 파운드리 공정과 HBM 사업이 결합될 경우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metro

아파트 대출규제에 오피스텔로… 1월 거래량 65.6% ‘쾅쾅’

수도권 2374건, 지방 992건
중대형 구간서 증가율 확대



올해 들어 전국 오피스텔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화된 대출 규제가 대부분 아파트에만 적용되면서 오피스텔로 수요가 쏠렸다.

9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개인 거래 기준)은 3366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65.6% 증가했다.

수도권은 2374건, 지방 992건으로 각각 63.5%, 70.7% 늘며 전국적으로 거래 증가 흐름이 나타났다.

면적별로는 전용 20~40㎡ 소형이 1830건으로 전체 거래의 54.4%를 차지했다.

다만 증가율은 중대형 구간에서 확대됐다. 전용 60㎡~85㎡미만의 중대형 오피스텔 거래는 542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6.8%, 85㎡ 이상 대형도 133건으로 224.4% 급증했다.

직방 관계자는 “아파트 대출 규제 강화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일부 실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진입 부담이 낮은 중대형 오피스텔로 눈을 돌리는 흐름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작년 10월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아파트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반면 오피스텔은 비주택으로 분류돼 규제에서 상

대적으로 자유로운 상황이다.

수도권에서는 서울·경기·인천 전반에서 거래가 늘어난 가운데 서울이 1083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1007건) ▲인천(284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세부 지역별로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가 128건으로 수도권 내 단일 지역구 가운데 가장 많은 거래를 기록했다. 분당구 일대는 정자동과 관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IT·게임 기업 등이 밀집해 있어 직주근접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는 지역이다.

서울에서는 여의도 금융업무지구와 인접한 영등포구(106건)가 가장 많은 거래를 기록했고 ▲잠실·문정 법조·유통업무지구가 위치한 송파구(93건) ▲DMC와 공덕역 일대 미디어·업무밀집 지역인 마포구(80건) ▲관악구(78건) ▲마곡

LG사이언스파크 등 업무단지를 끼고 있는 강서구(72건) 등이다. 인천은 미추홀구(78건), 연수구(56건), 부평구(51건) 등에서 거래가 많았다.

지방에서는 부산광역시가 244건으로 가장 많은 거래를 기록했다. 부산 내에서는 해운대구(52건), 부산진구(40건), 수영구(24건) 일대에서 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직방 관계자는 “설 연휴로 거래 가능 일수가 줄어든 2월에도 거래 증가 흐름이 이어질지 시장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며 “오피스텔은 아파트 대비 환금성이 낮고 장기적인 가격 상승 여력이 제한적인 만큼 입주자와 임대 수요가 검증된 단지를 중심으로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metro